

#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무급 돌봄노동

장지연\*

위기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기도 다르지 않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다. 2020년 9월 고용동향을 전년 대비로 살펴보면, 남성이 10만 9천 명 줄어든데 비해서 여성은 28만 3천 명 줄어들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와 보육시설이 수행하던 돌봄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게 되자 가정 내에서 돌봄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다. 유급 돌봄노동의 기회는 줄어들면서 무급 돌봄노동 책임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번 호의 『노동리뷰』에서는 '돌봄노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 편의 연구결과물을 신는다. 돌봄노동의 현실을 이해하고자 할 때, 두 가지 분석적 기준 또는 관점이 필수적이다. 하나는 유급 돌봄노동과 무급 돌봄노동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젠더적 관점이다. 이번 돌봄노동 특집은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다.

윤자영은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인구의 1인당 돌봄노동시간은 남성은 연간 228시간, 여성은 598시간이다. 여성의 경우, 시장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의 약 1/3 정도에 해당한다. 이 노동의 가치를 '대체비용법', 즉 다른 사람의 노동을 구매했다면 얼마가 들었을까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남성이 수행한 돌봄노동은 최소 6조 4천억 원 이상이고, 여성이 수행한 돌봄노동은 최소 17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GDP 대비 1.24%이다. 보육서비스, 장기요양보호제도 등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적지 않다.

장지연은 노동시장에서 유급으로 수행되는 돌봄노동의 시장가치를 살펴보았다. 통계로 포착되는 돌봄노동 종사자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와 '가사 및 육아도우미'는 66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9,284원이었다. 학력이나 근속기간 등 인적자본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돌봄일자리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 비공식성이 강한 상태로 시장화되어 있는 가내고용 돌봄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chang@kli.re.kr).

일자리는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 속한 돌봄일자리에 비해서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 한편 돌봄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관찰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돌봄일자리의 임금패널티는 일정기간 동안 변화없이 지속되다가 최근 2~3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였다.

은기수는 지난 6월 실시한 「COVID-19와 한국의 아동 돌봄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맞벌이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에 5시간 정도 자녀를 돌보던 것에서 6시간 47분으로 자녀 돌봄시간이 크게 늘었다.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시간은 9시간에서 12시간 38분으로 증가했다. 남성의 자녀 돌봄시간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증가하기는 했으나, 맞벌이 남성의 경우는 3시간에서 3시간 54분으로 늘어난 정도에 불과했으며, 홀벌이 남성은 3시간 30분으로 30분 정도 증가하였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전업주부가 가장 강했다. 자녀 돌봄은 실제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

돌봄노동은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 노동이다. 고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집단으로 생활해 온 인간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돌보아 준 증거가 다수 발견된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노동은 어느 시점에서든 멈출 수 없는 노동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돌봄노동의 의미를 한층 두드러지게 부각시켰다. 가정에서 돌봄노동이 급속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의 노고가 컸다. 미국의 로버트 라이히 교수가 누군가(the remote)는 원격근무를 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the essential)는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한 이래, 많은 국가들에서 이들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도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로 정의되는 필수노동자 5개 직종 중 하나로 돌봄노동자를 포함시켰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3만여 명, 재가 및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약 38만 명, 아이돌보미 2.3만 명, 민간 가사·간병인력 21만 명 등 69.6만 명을 염두에 두었다. 가정 내에서도 밖에서 수행되는 유급·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KLI**